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100003-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4
<https://kostat.go.kr/asdk/> 2024



통계청
통계개발원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권현지 (서울대학교)

- 2024년은 거시경제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이어 안정적인 노동시장 성과가 관찰되었다.
- 2024년 10월 현재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64.7%, 남성 72.9%, 여성 56.8%로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 2023년에 이어 2024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등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30대 여성의 두드러진 증가세이다. 경제활동인구의 주력으로 자리잡아 온 30~40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지체와 대비된다.
- 2024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다시 증가했다. 특히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을 포함한 단시간(주 36시간 미만) 노동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 2022년에 이어 2023년, 2024년 상반기에 실질임금 인상률은 물가 인상을 따르지 못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성별 임금 격차 감소 추세는 비정규직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3년 노사분규는 이례적으로 전년에 비해 100건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근로손실일수는 전년 대비 약 1만 1천 일 증가할 정도로 크지 않았다.

2024년은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난 2022년과 2023년 노동시장의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반감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강조된 한 해다. 2024년 하반기, 주요 대기업을 위시해 많은 기업에서 실시된 희망퇴

직이 사실상의 구조조정을 의미한다는 관측도 우세했다. 장기실업이 유례없이 급증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취업하지 않았다는 ‘쉬었음’ 인구의 상승이 언론의 주요 지면을 차지하기도 했다. 공히 거시경제의 ‘하방위험(downside risk)’에 따른 고용 부진의 신호들이다. 그러나 주요 노동시장 지표는 이러한 상황인식이 다소 일면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팬데믹 극성기를 지나 회복 국면에 들어선 2022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23년에 비해 2024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나 고용률 지표가 일관된 악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실업률 역시 마찬가지다. 2023년에 비해 대체로 $\pm 0.3\%p$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낮은 실업률의 안정 기조가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들 주요 지표가 최근 노동시장 일자리 질의 변화를 잘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크게 늘었다. 2024년 3/4분기 현재, 주 17시간 이하 노동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9.4%, 주 18~35시간 일한 근로자가 25.4% 등 소위 파트타임 근로자가 1/3 이상에 달했다. 노동수요의 변화에 대해 근로시간 조정으로 대응하는 양상이 크게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비정규직 비중도 2024년 8월 전년



동월에 비해 1.2%p 증가했다. 플랫폼 경제의 활성화 등에 따라 제도 울타리 밖에서 다양화되고 있는 유연 노동이 낮은 실업을 지탱하는 주요 동력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직접적인 인과성을 추론하기는 어렵다. 기존 주요 지표를 보완할 노동시장 불안정 지표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2024년에는 이렇듯 고용 측면에서의 유연성은 증가한 반면, 시간 활용의 유연성, 즉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할 수 있는 유연 근무의 활용은 2023년에 이어 감소 추세가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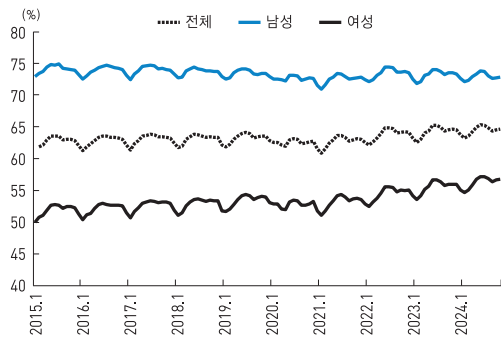
한편, 2023년에 이어 올해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는 단연 눈에 띄는 변화로 기록될 만하다. 팬데믹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를 주도한 여성의 노동력 공급 확대 추세는 2024년에도 지속되었다. 마이너스 성장을 포함해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세를 보여주는 남성과 크게 대비된다. 또 한가지 눈에 띄는 변화는 노사분규의 급증이다. 특히, 근로손실일수의 증가가 없는 노사분규의 증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제활동참가율

최근 10년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1월 전체 61.3%, 남성 73.0%, 여성 50.0%에서 2024년 10월 현재 전체 64.7%,

남성 72.9%, 여성 56.8%로 변화했다. 해당 기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 여성은 6.8%p 증가했다(그림 V-1).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대체로 70%를 상회하는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지만, 팬데믹을 계기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그림 V-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2015.1-202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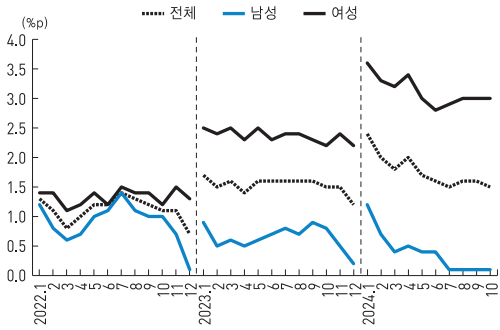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의 비율을 의미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최근 노동시장 통계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양상이다. [그림 V-2]는 팬데믹 극성기였던 2021년 동월을 기준으로 2022년 1월 이후 월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감을 제시한 것이다. 2022년에는 1.5%p 이내 범위에서 성별로 큰 차이 없이 회복세를 볼 수 있지만, 2023년부터는 그 격차가 확연히 벌어지기 시작했다.

남성의 경우 2021년 대비 2024년 경제활동참가율에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2022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데 반해, 여성은 2021년 동월 대비 2023년 2.5%p 내외, 2024년 다소간

고저가 있지만, 대략 3.0%p 내외의 증가를 지속했다.

[그림 V-2] 성별 2021년 동월 대비 경제활동참가율 증감, 2022.1-2024.1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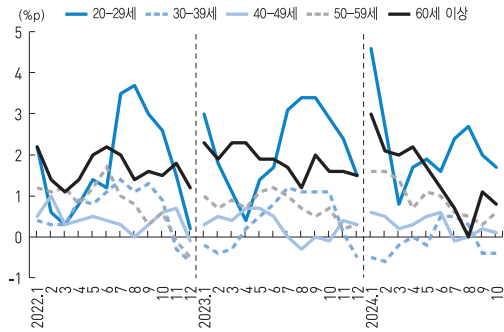
한 걸음 더 들어가 성별 및 연령집단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살펴보자. [그림 V-3]에서 여성의 연령집단별 2021년 동월 대비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감을 보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0대 여성 집단에서는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3.0%p 이상의 상승이 확인되는데, 다른 연령대의 변동 폭과 비교했을 때 인상적인 상승세이다. 30대 여성의 급격한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추세는 이들 내부의 구성 변화, 즉 남성과 경제활동 참가에서 격차를 보이지 않는 30대의 미혼 및 고학력 여성의 비중 증가와 관련이 깊다. 또한,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 30대 여성만큼 증가 폭이 크지는 않지만 2022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이어

오고 있다. 여성 집단 내에서는 40대 여성의 증가세가 가장 더딘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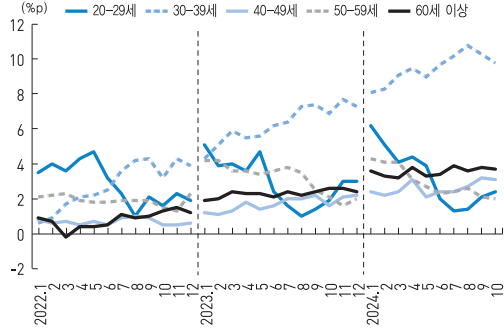
반면, 남성의 경우 20대와 60대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 2021년 동월 대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동 폭은 1%p 이내로 의미 있는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다만 30대 남성의 경우, 가장 고전하는 집단으로 30대 여성 집단과 대비된다. 20대 남성의 경우 변동성이 큰 반면, 60대 남성의 경우는 느리고 작지만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V-3] 성 및 연령별 2021년 동월 대비 경제활동참가율 증감, 2022.1-2024.10

1) 남성



2) 여성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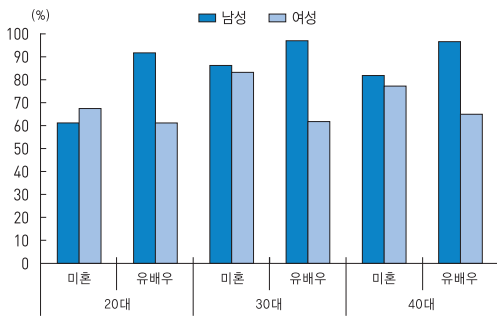
2023년 기준으로 보면, 30대 여성의 급격한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추세는 결혼상태와 관련된다. 30대의 경우 미혼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85% 전후로 격차가 미미한데 반해 기혼의 경우 남성과 여성 간 참가율 격차가 약 36%p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현저히 크다. 한편, 대졸 미만 여성의 참가율은 58.5%인데 반해 대졸 이상 여성의 참가율은 72.7%로 동학력의 남성 참가율 간 격차를 10%p대로 줄이고 있다. 이는 30대 여성의 고학력화와 결혼

을 선택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비중의 증가가 30대 여성의 참가율 증가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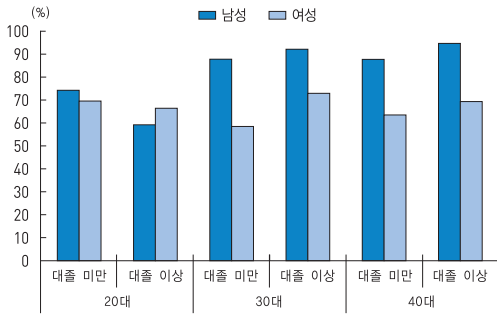
한편, [그림 V-5]에 제시된 2023~2024년 취업자 수의 변화는 앞서 본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추이를 뒷받침한다. 팬데믹 극성기가 지나간 2022년은 분기마다 전년 동분기 대비 60만 명이 넘는 취업자가 노동시장에 유입되었다. 2023년은 그러한 2022년의 특수를 지나 매분기 30만 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가 있었고, 2024년에는 2023년에 비해 다소 낮은 1/4분기 29만여 명, 2/4분기와 3/4분기 각각 15만여 명의 취업자 증가가 있었다. 경제활동참여율의 변화와 유사하게, 남성의 취업자 변화는 2023년 하반기 이후 1/4분기와 4/4분기를 제외하면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여성의 경우 증가세는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절대 수의 증가는 2023년 하반기 이후에도 지속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그림 V-4] 성 및 연령별 혼인상태 및 교육수준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2023

1) 혼인상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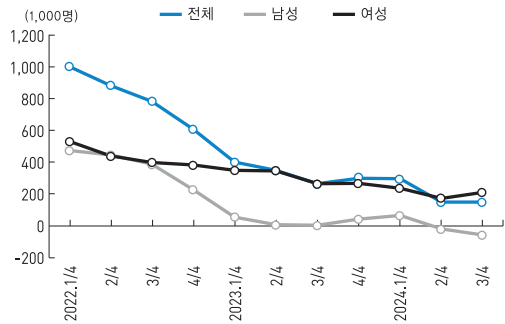


2) 대졸 여부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23.

[그림 V-5] 성별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 증감, 2022.1/4~202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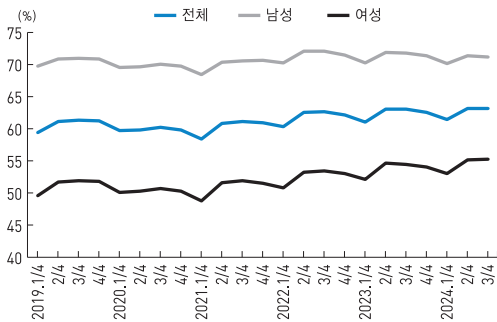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분기.

고용률과 실업률

2022년 취업자의 급증이 뒷받침하듯, 2022년 연간 고용률은 62.1%로 2019년의 60.9%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2022년의 급격한 증가세는 수그러졌지만 2023년 고용률도 2022년 대비 0.5%p 상승한 62.6%로 마감했다. 2024년 1/4분기 고용률은 61.6%로 2023년 4/4분기(62.7%)에 비해 1.1%p 하락하면서 잠시 주춤했으나, 2/4분기와 3/4분기는 2023년보다 높은 63.3%로 곧 회복되었다.

남성 고용률의 경우, 2022~2023년 증감 폭은 1%p 이내로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2024년 들어서도 1/4분기 잠시 하락했지만, 곧 71%대로 회복되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2024년에도 전년 동분기 대비 하락은 없었다. 1/4분기 잠시 정체되었으나 이후 다시 성장세를 이어가 3/4분기 전년 동기 대비 0.8%p 높은 55.5%를 기록했다(그림 V-6). 다른 지표들과 동일하게

[그림 V-6] 성별 고용률, 2019.1/4-202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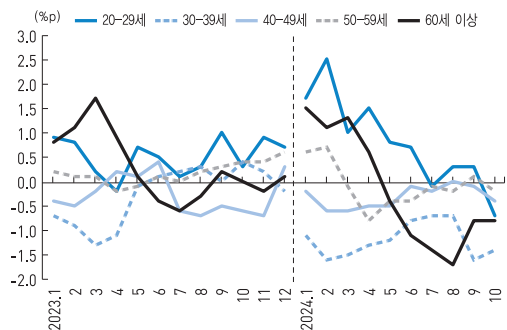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분기.

2022년 4/4분기 이후 지체되고 있는 남성 고용률과 상승세를 탄 여성 고용률 사이 변화 폭이 한층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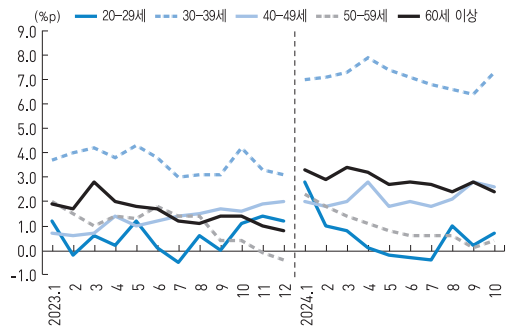
[그림 V-7]은 성 및 연령집단별로 2022년 동월 대비 2023년 이후 월별 고용률 증감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남성의 경우 20대는 2023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온 반면, 30대는 2023년 하반기에 잠시 회복세를 보이다가 2024년부터 줄곧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40대와 50대는 고용률 변화가 미미하다. 60대 이상은 상반기에는 증가

[그림 V-7] 성 및 연령별 2022년 동월 대비 고용률 증감, 2023.1-2024.10

1) 남성



2) 여성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세를 보이다가 하반기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여성의 경우 거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30대의 고용률 증가 폭이 눈에 띄며, 팬데믹 이후 회복이 가장 더뎠던 40대도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실업률 역시 3% 내외의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2022~2024년 각 1/4분기에는 신규 졸업자 효과로 인해 실업률이 각각 3.5%, 3.2%, 3.3%로 높았지만, 이후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는 줄곧 2%대로 유지되었다. 이는 팬데믹 이전과 비교할 때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성별로는 눈에 띄는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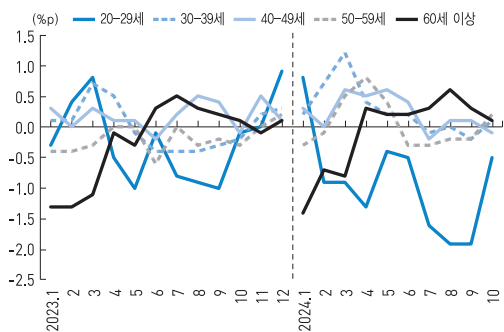
[그림 V-8]은 최근 실업률의 변화 추이로, 팬데믹 회복기인 2022년 동월 대비 2023년과 2024년 월별 실업률 증감을 성 및 연령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2022년 동월에 비해 실업률이 줄곧 높았던 집단이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다. 2024년 상반기 30대와 50대의 실업률이 2022년 동분기에 비해 잠깐 높아졌으나 모두 1% 미만이다. 청년 남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등락 폭이 크다는 특징이 있지만, 2024년 들어 실업률 저하가 가장 현저한 집단이다.

여성들의 실업률 안정세는 더 두드러진다.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60세 이상 집단의 실업률이 2024년 2/4분기 이후 다소 올라왔지만, 거의 변화가 없는 수준이다. 모든 연령집단에서 2022년 대비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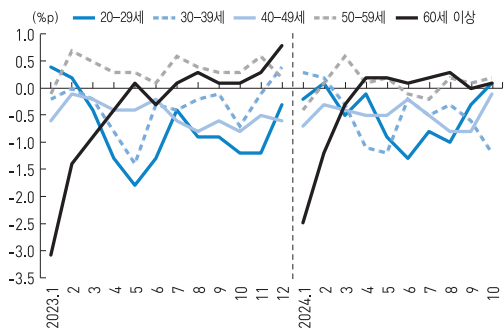
2023년에 이어 경제활동참가, 고용, 실업 지표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현상, 즉 30대 여성의 급격한 노동시장 참가 증가는 청년 여성의 변화된 젠더규범을 반영한다. 같은 연령대 기혼 여성과 참가율에 있어서 큰 격차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과 일이 병립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림 V-8] 성 및 연령별 2022년 동월 대비 실업률 증감, 2023.1-2024.10

1) 남성



2)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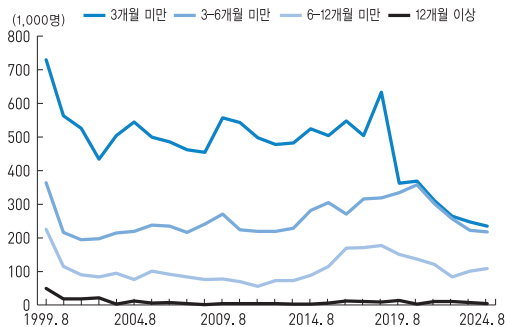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한편, 올해 노동시장에서 잠시 제기되었던 구직 포기 혹은 실업의 장기화 우려도 통계로 뒷

받침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림 V-9]는 1999년부터 2024년까지 매해 8월의 구직기간별 실업자 수의 25년간 추세를 보여준다. 구직기간으로 본 실업자 중 가장 많은 수는 3개월 미만 구직 집단에 속하고, 이들의 수는 팬데믹 이후 줄어들어, 3~6개월 미만과 거의 유사한 곡선을 그리고 있다. 반면 한국 노동시장에서 12개월 이상 구직하고 있는 실업자의 수는 통계상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의 비교적 장기에 해당하는 경우도 2010년대 후반 증가했으나, 팬데믹 이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업률 상황은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의 안정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실업급여의 소득 대체 정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서비스 경제, 플랫폼 경제 등이 제공하는 시간 혹은 개수당 보수를 제공하는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겠다.

[그림 V-9] 구직기간별 실업자 수, 1999.8-20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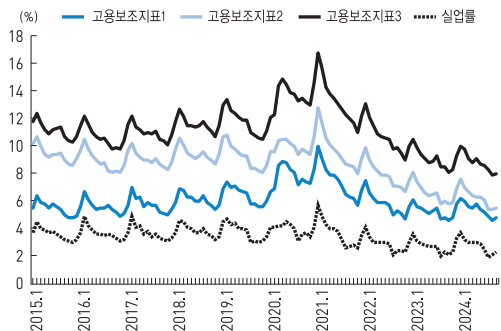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8월.

낮은 실업 현상은 기존 실업자통계가 포괄하지 못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 즉 높은 고용 불안전성의 결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이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고용보조지표를 살펴보자.

팬데믹 극성기였던 2021년 1월에는 10.0%(보조지표1), 12.8%(보조지표2), 16.8%(보조지표3) 등 3가지 고용보조지표가 모두 급등하고 실업률과 격차도 커 일자리 부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그림 V-10]에서 보여주듯이 최근으로 올수록 실업률 뿐 아니라 각종 고용보조지표 역시 하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들과 실업률의 격차도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적어도

[그림 V-10] 고용보조지표(체감 실업률), 2015.1-2024.10



- 주: 1) 고용보조지표1=(실업자+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경제활동인구×100.
- 2) 고용보조지표2=(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
- 3) 고용보조지표3=(실업자+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잠재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100.
- 4)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조사 대상 주간에 실제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인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자.
- 5) 잠재경제활동인구: '잠재취업가능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 희망/가능자인 '잠재구직자'를 합한 인구.
- 6) 확장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낮은 실업률이 불안전 고용의 증가와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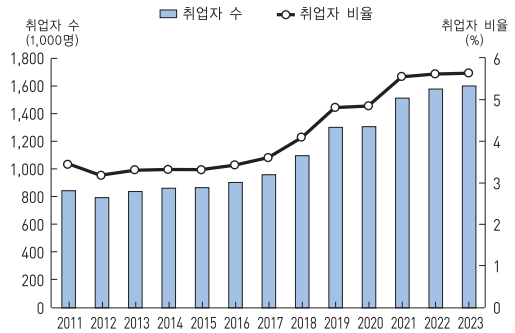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낮은 실업률과 불안정성의 공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엿보게 하는 지표 중 하나는 초단시간 취업자 수의 변화 추이다.

[그림 V-11]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의 빠른 증가추세를 보여주는데, 특히 2017~2019년 사이의 기울기가 가파르다. 주 15시간 미만 고용으로 주휴수당을 회피하려는 경향과 배달 등 노무 제공 플랫폼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을 배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 수는 팬데믹 이전인 2017년 96만 명 정도에서 2023년 160만 명 정도로 급격히 늘었고,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7년 3.6%에서 2023년 5.6%로 늘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증가는 학생이나 전업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소득보전책의 증가로 볼 수도 있으나, 앞서 살펴본 불안전 일자리 증가와 연결될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고용보조지표의 하락세는 초단시간 일자리가 고용불완전 상태보다는 고용불안정, 즉 여러 일자리를 붙여 소득 보전을 꾀하는 방식의 근로자 전략(일명 'N잡')과 맞물릴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 지표상의 개선이 반드시 노동시장 안정화와 연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지만, 현재의 통계로 입증되기는 어렵다.

생산물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추세적으로 확인되는 노동시장 지표의 안정

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와 관련해 추후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V-11]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 수, 2011~2023



주: 1) 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취업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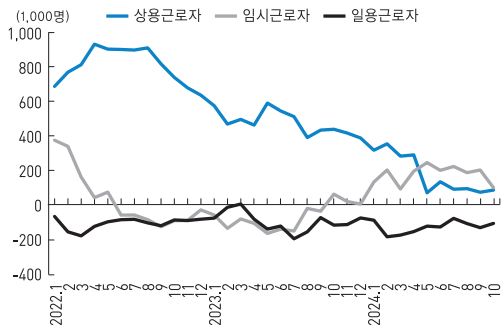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다른 측면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를 받쳐주는 질 낮은 일자리의 확산과 관련된다. 상용직 고용에 비해 단기 일자리를 전전해야 하는 임시·일용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취업자 중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임시직의 경우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인다. 일용직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한편, 자영업자 규모도 전년 동월 대비 매년 증가 추세인데, 이들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규모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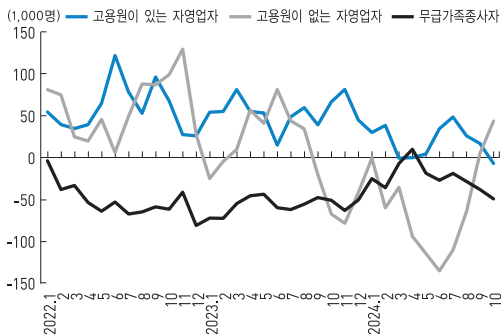
2023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4년 상반기 감소 후 2024년 9월부터 다시 반등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V-12). 이런 추세를 종합할 때 임시·일용 근로자의 규모로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림 V-12] 종사상지위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감, 2022.1-2024.10

1) 임금근로자



2) 비임금근로자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한편,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인,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

펴보자. <표 V-1>을 보면, 2024년 8월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38.2%로 2021년 8월 38.4%에서 2022년 8월 37.5%, 2023년 8월 37.0%으로 감소했던 추세를 멈추고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팬데믹 재유행 시기인 2021년 비율과 유사한 수치이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팬데믹 이후 다소 감소를 보였던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2024년 증가했다. 2024년 기준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846만여 명으로 2023년 대비 약 33만 7천여 명 증가했으며, 비율로는 2023년 37.0%에서 1.2%p 증가한 38.2%이다. 근로형태별로 보면, 한시적근로자와 시간제근로자가 2023년 대비 각각 1.4%p, 1.6%p이 증가하여 비정규직 고용계약이 늘었다.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2023년 대비 5만 8천여 명 증가해 30.4%, 여성은 27만 9천여 명 증가해 47.3%를 기록했다. 한편, 반면, 여성 정규직 근로자 수는 2023년 546만여 명에서 2024년 539만여 명으로 7만여 명이 감소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성의 일자리 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기보다는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근로형태별로 살펴보면, 2024년 8월 현재 한시적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25.4%(여성 30.8%)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녀 모두 2023년 대비 증가했다.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19.2%로 전년 대비 1.6%p 증가했다. 특히, 여성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29.5%로 전년 대비 2.3%p 증가해 남성의 증가 폭(0.8%p)보다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비전형 근로자의 비율은 8.6%로 전년 대비 0.3%p 감소했다.

〈표 V-1〉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2019.8-2024.8

	전체 비정규직	한시직	시간제	비전형
(%)				
전체				
2019	36.4	23.3	15.3	9.9
2020	36.3	22.5	15.9	10.1
2021	38.4	24.6	16.7	10.9
2022	37.5	24.6	17.0	9.8
2023	37.0	24.0	17.6	8.9
2024	38.2	25.4	19.2	8.6
남성				
2019	29.4	19.6	7.4	9.9
2020	29.4	18.3	8.1	10.8
2021	31.0	19.4	8.8	11.7
2022	30.6	19.8	9.4	10.1
2023	29.8	19.7	9.6	9.1
2024	30.4	20.7	10.4	8.9
여성				
2019	45.0	27.8	25.2	10.0
2020	45.0	27.8	25.7	9.5
2021	47.4	31.0	26.4	9.9
2022	46.0	30.4	26.2	9.4
2023	45.5	29.0	27.2	8.6
2024	47.3	30.8	29.5	8.2

주: 1) 통계치는 전체 임금근로자 중 해당 근로형태의 비율(%)임.
 2) 한시직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비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함.
 3) 시간제근로자는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가 해당됨.
 4) 비전형근로자는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근로자, 일일근로자를 포함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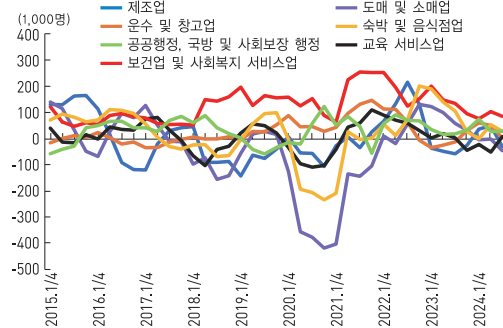
다음으로 산업별 취업자 구성을 살펴보자.

[그림 V-13]은 2015년 1/4분기 이래 2024년

3/4분기까지 10년간 산업별 취업자 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환경의 영향을 가장 심대하게 받은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에 비해,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다소간의 출렁거림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한 업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운수 및 창고업은 코로나 19 국면 이후에 부진한 상태이고, 제조업은 최근 2022년 3/4분기 한 번의 스파이크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과 남성의 취업자 수 증감에 이러한 산업적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24년의 경우 제조업은 1/4분기, 2/4분기에 전년 동분기 대비 취업자 수가 다소 증가했으나, 3/4분기에 다시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팬데믹 시기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수의 경우, 2023년 하반기 들어 감소세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듯했으나,

[그림 V-13] 주요 산업별 전년 동분기 대비 취업자 수 증감, 2015.1/4-202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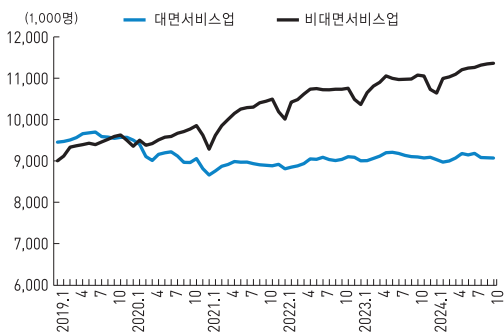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2024년 들어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을 겪은 2021년 1월을 제외하고는 최근 5개년 간 취업자 수가 전년 동분기 대비 꾸준히 증가한 업종이다.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다만, 그 증가세는 둔화된 양상이다. 한편, 2022년 하반기부터 증가세를 회복했던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23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된 모습이다.

한편, 서비스업의 구조도 변화하고 있는데, 서비스업종 중 비대면에 기반한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V-14]를 보면, 코로나19 2차 대유행 기간(2020년 9~10월)을 기점으로 대면서비스업 취업자 수를 넘어선 비대면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그 격차를 더욱 벌리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4년

[그림 V-14] 대면 및 비대면 서비스업 취업자 수, 2019.1~2024.10



주: 1) 대면서비스업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하였고, 비대면서비스업은 그 외 서비스업종으로 분류하였음.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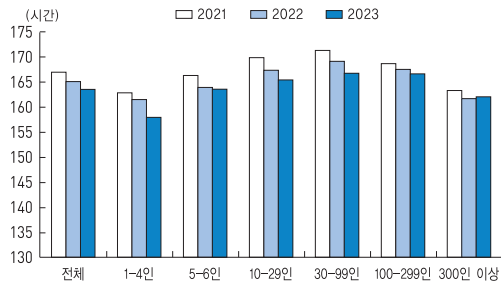
10월 대면서비스업과 비대면서비스업 간 취업자 수의 격차는 229만여 명으로 최근 5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노동시간과 유연노동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24년 3/4분기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월 154.8시간으로 전년 동기 156시간에 비해 1.2시간 줄었다.

[그림 V-15]에서 보듯이, 사업체 규모별로는 2023년 상용근로자 기준 5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시간이 월 158.0시간으로 가장 짧고, 30~99인, 100~299인 등 중규모 사업체의 근로시간이 각각 월 166.8시간, 월 166.7시간으로 가장 길며,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월 162.1시간이다.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격차는 8시간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 2022년 대비 2023년 근로시간 증감을 보면, 300인 미만 사

[그림 V-15]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2021~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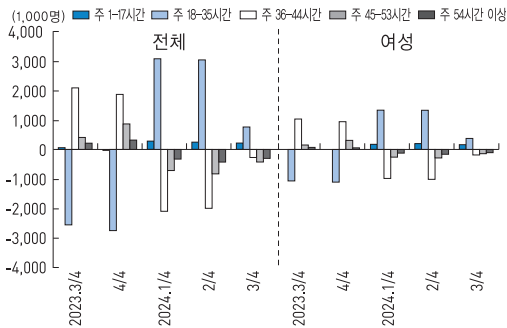
주: 1) 월평균 근로시간은 상용근로자 기준 총근로시간(소정실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임.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업체는 근로시간이 줄어든 반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근로시간은 0.4시간 늘었다.

다음으로 2023년 3/4분기 이후 전년 동분기 대비 주당 근로시간별 취업자 증감 현황을 살펴보자. [그림 V-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년 3/4분기와 2023년 4/4분기에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취업자는 전년 동분기 대비 각각 249만여 명, 274만여 명 감소하고,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전년 동분기 대비 각각 278만여 명, 311만여 명 증가했다. 2024년 2/4분기와 3/4분기에는 반대의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취업자 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각각 333만여 명, 102만여 명이 증가한 반면,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각각 320만여 명, 94만여 명이 감소했다. 여성의 경우에도 규모는 다르지만, 같은 경향이 발견된다. 2023년과 달리 2024년 경기 변동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 단시간 근로자를 늘리거나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온 것을 함의한다.

[그림 V-16] 주당 근로시간별 전년 동분기 대비 취업자 수 증감, 2023.3/4-2024.3/4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분기.

팬데믹 상황에서 확대된 유연근무 양상은 포스트 팬데믹 국면이 전개되면서 그 이용률이 추세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표 V-2>를 보면, 유연근무 전반의 이용률은 팬데믹의 영향이 약화된 2022년 감소하기 시작해 2024년까지 그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2024년의 경우 전체 15.0%의 임금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했는데, 이는 2023년에 비해 0.6%p 낮은 결과다. 지난해 전년 대비 0.4%p 낮아진 데 비해 하락 폭이 커졌다. 이런 추세는 여성 유연근무 경험자의 상대적으로 큰 하락 폭에 기대고 있다. 여성 중 유연근무 경험자는 팬데믹기였던 2021년 15.2%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14.4%, 2023년 13.9%, 그리고 2024년 12.6%로 하락했다. 특히 2024년 전년 대비 1.3%p 낮아진 것이 눈에 띈다. 반면, 남성 중 유연근무 경험자는 2024년 17.1%로 2023년과 비교해 변화가 없었다. 성별 차이는 2021년 이후 3.0%p, 2024년 4.5%p로 벌어지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집중 육아기 근로자가 모여있는 30~39세 집단의 활용률은 2023년 22.5%로 살짝 하락했지만, 2024년 23.1%로 다시 소폭 상승했다. 유연근무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연령집단은 10~20대와 50대 중고령층이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과 미혼 전년 대비 모두 0.6%p로 소폭 하락했는데, 미혼의 활용률이 기혼보다 높음을 보여준다.

여러 지표는 임금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 여

부가 필요보다는 노동시장의 위치에 따른 회사의 제도 도입 여부 및 근로자의 교섭력의 정도에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가리키고 있다. 또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임금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률 10.8%는 2017년 5.2%, 2018년 8.4% 등 매년 2~3%p 수준의 상승추세 속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4년 15.0%는 팬데믹

효과의 추세적 반감일 뿐 아니라 팬데믹 이전의 상승 추세로부터도 둔화된 결과다. 저출산과도 관련이 깊은 근로자의 시간 활용 유연성에 대한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이 현재보다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한편, 유연근무 형태별 구성에서 가장 현격한 변화는 팬데믹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로 활용도가 크게 높았던 재택 및 원격근무 활용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팬데믹 극성기였던 2021년 32.3%, 2023년 19.9%에 이어 2024년에도 15.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팬데믹 이전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시차 출퇴근의 활용 비율은 35.0%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33.7%에 비해 더 지배적인 유연근무 형태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를 탄력적 근무(29.5%), 선택적 근무시간(25.4%) 등이 따르고 있다.

〈표 V-2〉 임금근로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유연근무 활용 비율, 2019-2024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10.8	14.2	16.8	16.0	15.6	15.0
성						
남성	12.2	15.9	18.2	17.3	17.1	17.1
여성	9.0	12.0	15.2	14.4	13.9	12.6
연령						
15-29세	8.5	13.3	16.5	14.6	15.0	13.4
30-39세	16.0	19.9	23.6	23.8	22.5	23.1
40-49세	12.9	17.1	20.1	19.0	18.6	18.1
50-59세	9.6	12.2	15.0	14.2	14.7	13.6
60세 이상	3.0	4.9	5.6	5.9	5.3	4.9
혼인상태						
미혼	9.4	14.0	17.9	16.7	16.7	16.1
기혼	11.4	14.2	16.3	15.7	15.1	14.5
활용형태(복수응답)						
근로시간단축근무	17.1	13.1	10.1	11.0	9.6	12.0
시차 출퇴근	33.7	31.2	29.9	31.7	33.0	35.0
선택적 근무시간	30.4	26.4	23.1	24.8	26.5	25.4
재택 및 원격근무	4.3	17.4	32.3	27.5	19.9	15.9
탄력적 근무	32.0	29.1	27.4	27.9	31.2	29.5
기타(재량근무 등)	9.6	10.2	8.7	9.1	9.2	9.3

주: 1) 음영은 2020~2024년 비율 중에서 전년대비 0.0%p 이상 감소한 특성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육아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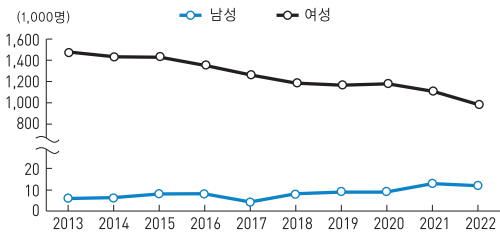
한편, 육아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 규모가 여성의 경우 약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특기할 만하다. 이는 10년간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맞물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30대 여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그 규모는 10년 동안 1.3배, 40대 이상에서는 7배가량 증가했다. 한편, 남성의 육아로 인한 비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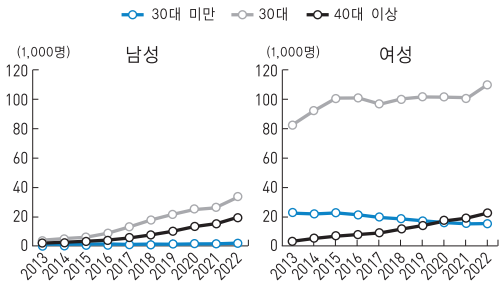
인구 규모는 여성에 비해 적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그림 V-17).

[그림 V-17] 성별 육아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와 성 및 연령별 육아휴직자 수, 2013-2022

1) 성별 육아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



2) 성 및 연령별 육아휴직자 수



주: 1) 2022년 육아휴직자 수는 잠정치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육아휴직통계」, 각 연도.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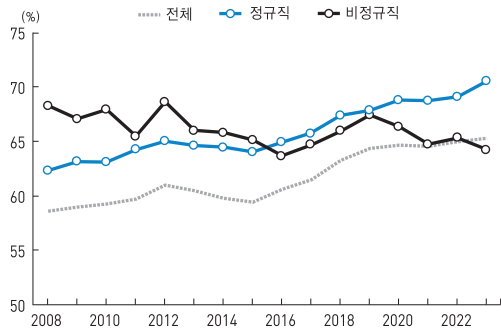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월임금총액은 396만 6천 원이었다. 2022년 월임금총액 386만 9천 원과 비교할 때, 명목임금이 2.5% 상승했다. 2022년 명목임금 상승률 4.9%와 비교할 때 2.4%p 낮아졌다. 명목임금은 이렇게 소폭 상승했지만, 물가 상승

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오히려 1.1% 감소했다. 이는 2022년 0.2% 감소에 이은 연속 하락이다.

한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정규직의 월임금총액은 428만 원으로 비정규직의 187만 6천 원의 2.28배를 기록했다(그림 V-18). 이는 2021년 2.26배, 2022년 2.23배에 살짝 높아 그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개선 효과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를 성별 임금 격차와 교차 시켜보면, 2015년을 기점으로 성별 임금 격차 양상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뚜렷하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규직의 경우 2015년 이후 성별 임금 격차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23년에는 70% 수준까지 상승했다. 반면 비정규직은 2015년 이후 격차가 오히려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격차가 더욱 벌어져 2023년에는 64% 수준까지 하락했다.

[그림 V-18] 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격차, 2015-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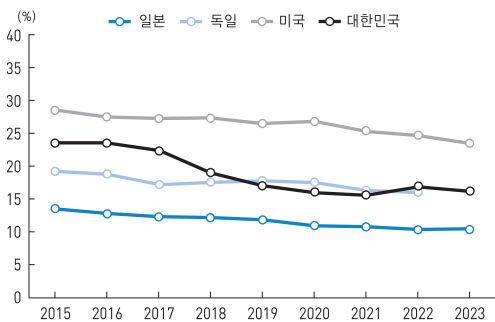


주: 1) 성별 임금 격차는 남성 대비 여성 월임금총액의 비율임.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이러한 현상은 여성 고용의 개선과 함께 꾸준히 진행되어 온 전반적인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추세의 다른 면이다. 즉, 그간의 개선 추세가 주로 정규직 부문의 변화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 혹은 노동시간 감소가 임금 격차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V-19]는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을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한 것이다. 2023년 현재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16.2%(남성 10.9%, 여성 24.5%)로 2017년 22.3%(남성 14.3%, 여성 35.3%)로부터 상당히 개선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일본(2023년 기준 10.4%)에 비해 높지만, 2010년대 중반경 근접했던 미국(2023년 기준 23.3%)에 비해 한층 낮고, 독일(2022년 기준 16.0%)에 근접한 수준으로 변해왔다.

[그림 V-19] OECD 주요 국가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 2015-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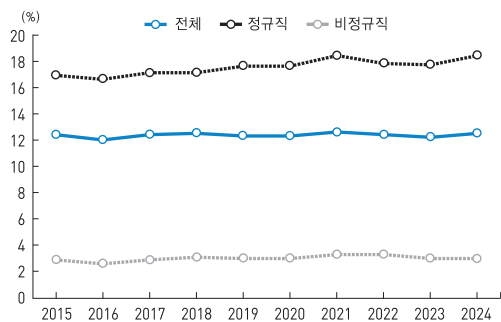


주: 1) 저임금 근로자 비율=(월임금 중위값의 2/3 미만 임금근로자 수 ÷ 전체 임금근로자 수)×100.
 2) 독일의 2023년 통계치는 없음.
 출처: OECD, OECD Data Explorer: Incidence of low and high pay, 2024.

노동조합 조직률과 기타 노사관계 현황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노동조합 가입률은 2023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다. 2024년 12.5%는 전년도에 비해 약 0.3%p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1년 12.6%, 2022년 12.4%, 2023년 12.2% 등 하락세를 보여온 것이 반등했다는 의미는 있다. 비정규직의 가입자 비율은 3.0%로 전년 대비 변화가 없는 가운데, 정규직은 18.4%로 전년 대비 0.7%p 증가했다(그림 V-20). 이러한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 증가는 사업장에 노조가 없다는 근로자의 비율(64.5%)이 2%p 정도 줄어들어 따라 노조 가입 가능자 비율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조 가입 가능자 중 가입자 비율(62.5%)은 전년도에 비해 1%p 줄었다.

[그림 V-20]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조합 가입률, 2015.8.-20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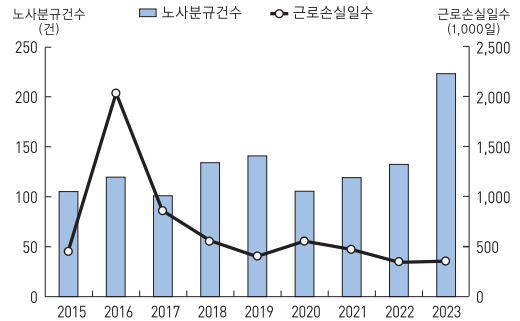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23년 노사분류 발생 건수는 223건으로 2022년 132건에서 크게 증가했다. 물가 급상승



에 따른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주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다만, 202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던 근로손실일수는 2023년 노사분규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35만 5천 일로 나타나 2022년 34만 4천 일 대비 약 1만 1천 일 증가하는 데 그쳤다(그림 V-21). 1일 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분규 발생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주로 조기 타결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개연성을 암시한다. 2023년의 노사분규 급증이 일시적 현상일지에 대해서는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

[그림 V-21] 노사분규 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2018-2023



출처: 고용노동부, 「노사분규통계」, 각 연도.